

『한민족어문학』 제78집 편집자의 말

제78집에 실린 논문은 총 14편으로 (한)국어교육 3편, 국어학 3편, 고전문학 4편, 현대문학 4편이다. 두 차례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한 분야에 치중됨 없이 전공별로 고르게 게재되었다.

(한)국어교육 분야의 게재논문은 강명혜의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기초 글쓰기 교육 방안’, 엄진숙의 ‘한국어 학습자의 다의어 사용 양상 연구-형용사 ‘좋다’를 중심으로-’, 채은경·배지영의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쓰기 불안 상관성에 대한 연구’로 모두 3편이 실렸다.

강명혜의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기초 글쓰기 교육 방안’은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글쓰기 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실력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의문점에서 출발한 논문이다.

엄진숙의 ‘한국어 학습자의 다의어 사용 양상 연구-형용사 ‘좋다’를 중심으로-’는 형용사 ‘좋다’의 다의적 용법을 통해 다의어의 기본의미와 확장의미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논문이다.

채은경·배지영의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쓰기 불안 상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느끼는 불안을 말하기 측면과 쓰기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상관성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국어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소효하의 ‘한국과 중국 주식기사에서의 주가(株價) 관련 개념적 은유 대조’, 이금희의 ‘한국어 양보절 접속어미의 문법 범주와 의미 특성에 대하여 - ‘-어도, -더라도, -(으)르지라도’를 중심으로,

홍기옥의 ‘경상도 지역의 임신·출산 관련 어휘 연구2-기자의례, 준비물, 금기, 속설을 중심으로-’로 모두 3편이 실렸다.

소효하의 ‘한국과 중국 주식기사에서의 주가(株價) 관련 개념적 은유 대조’는 한국과 중국 주식기사에서의 주가 관련 개념적 은유를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둔 논문이다. 양국 주식기사에 나타난 은유 연구를 통해서 은유 연구 영역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한·중 간의 인지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금희의 ‘한국어 양보절 접속어미의 문법 범주와 의미 특성에 대하여 - ‘-어도, -더라도, -(으)르지라도’를 중심으로 -’에서는 최근 논의들에서 ‘대립’과 ‘양보’를 상하위 분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며, 대립과 양보의 개념은 구별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홍기옥의 ‘경상도 지역의 임신·출산 관련 어휘 연구2-기자의례, 준비물, 금기, 속설을 중심으로-’에서는 경상도 지역의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어휘목록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고전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김묘정의 ‘1697년 三使 연행시의 교류성 연구 - 崔錫鼎·宋相琦·崔奎瑞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하운의 ‘淸陰 金尙憲 漢詩에 나타난 지식인의 苦惱와 超脫에 대하여’, 윤인현의 ‘『東國 李相國集』을 통해 본 李奎報의 포스트휴머니즘’, 최상은의 ‘〈燕行歌〉의 독자와 작가의식’으로 모두 4편이 실렸다.

김묘정의 ‘1697년 三使 연행시의 교류성 연구 - 崔錫鼎·宋相琦·崔奎瑞의 작품을 중심으로 -’는 1697년 연행에 임했던 崔錫鼎, 宋相琦, 崔奎瑞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아 三使 연행시의 교류성을 조명하고자 한 시도의 일환이다.

김하운의 ‘淸陰 金尙憲 漢詩에 나타난 지식인의 苦惱와 超脫에 대하여’에서는 청음 김상헌이 강인한 절조의 상징으로 표상되는 관료이지만, 그도 여느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고뇌에서 벗어난 초월적 세계를 노래했

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달관의 여유도 지니고 있었음을 논의했다.

윤인현의 『東國李相國集』을 통해 본 李奎報의 포스트휴머니즘'은 고려 무신 시대를 살았던 백운 이규보의 시문학을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살펴본 논문이다. 백운의 시에는 근래 서구의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다른 種뿐만 아니라 他 階層과도 평등함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 포스트휴머니즘의 출발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최상은의 '〈燕行歌〉의 독자와 작가의식'은 『연행가』가 집안의 여성 독자들을 위해 창작되었다는 점에 착안해서, 여성 독자와 작품전개의 상관관계를 따져본 논문이다. 여성 독자를 전제로 한 사행가사이면서 기행가사인 『연행가』의 작가의식의 향방을 밝혀, 19세기 이행기 문학의 한 단면을 구명하고자 했다.

현대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김윤서의 '장덕조 소설에 내재한 '질투' 모티프 고찰 - 『激浪』을 중심으로 - ', 박한라의 '김경주 시에 나타난 감각 운용 연구', 심영덕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융합 가능성 모색', 최중녀의 '『생활의 윤리』에 나타난 이분법적 사고와 자립적 여성상의 정립'으로 모두 4편이 실렸다.

김윤서의 '장덕조 소설에 내재한 '질투' 모티프 고찰 - 『激浪』을 중심으로 -'은 장덕조의 연애소설 『激浪』에 내재한 '질투' 모티브를 인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1950년대의 다양한 자장 안에서 고찰한 논문이다.

박한라의 '김경주 시에 나타난 감각 운용 연구'에서는 감각이 실재를 사유하는 과정을 김경주의 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감각이 시에서 세계를 현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실재를 사유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심영덕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융합 가능성 모색'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미래와 관련된 예측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중녀의 『생활의 윤리』에 나타난 이분법적 사고와 자립적 여성상의 정립'에서는 해방 전, 1940년대 초반 작품인 이기영의 『생활의 윤리』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법적 사고와 자립적 여성상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